

신체화의 현존재분석적 이해

이 죽 내*†

Somatization in the Perspective of Daseinsanalysis

Zuk-Nae Lee, M.D.*†

국문초록

신체화의 개념과 기전에 관해, 정신분석 이론을 비롯한 많은 이론들이 제시되어 왔다. 저자는 인간의 본질(존재의미의 이해)에 대한 통찰력에서 출발하고 있는 현존재분석의 관점에서 신체화의 개념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현존재분석에서 보는 신체화 현상은 인간의 세계관계의 직접적 표현이다. 현존재분석에서는 신체라는 말 대신에, 의미를 드러내는 '신체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신체화 현상의 이해란 그 현상이 드러내는 의미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신체화 현상은 세계관계의 직접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 현상이 드러내는 의미는 그 인간의 세계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그 현상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법은 현상학적 방법이다.

중심 단어 : 신체화 · 현존재분석 · 존재의미 · 신체성 · 세계관계 · 현상학적 방법.

서 론

신체화란 용어는 Wilhelm Stekel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로서, 그는 신체화를 뿌리깊은 신경증적 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체장애의 한 유형으로 보았다¹⁾. 마치 신체기관이 정신적 문제를 병태생리학적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았다. Freud²⁾는 히스테리 환자들의 신체화 증상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히스테리성 전환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그 후 정신분석에서는 신체화를 심리적 갈등이 신체증상으로 전환하여 표출되는 하나의 방어기제로 보았다. 그러나 신체화의 기전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제시되어 왔다. 그 이론들은 대

체로 역동심리학적 측면, 인지적 측면, 학습된 행동측면, 생물학적 측면 및 황문화적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³⁾. 이들 이론들의 신체화 개념은 다르지만, 신체화 현상을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나 갈등이 신체증상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고 있고, 그 기전을 규명하는 원인적 설명이라는 데는 같다. 그러나 현존재분석에서 신체화 현상은 그 사람의 세계관계의 직접적 표현으로서, 병적 증상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신체현상도 포함된다. 그리고 신체화의 현존재분석적 이해는 신체화의 '원인'적 설명이 아니라, 신체화 현상의 '의미'의 이해이다.

의미이해란 말은 여러 가지 뜻으로 이해될 수 있겠는데, 현존재분석의 의미이해는 Heidegger⁴⁾의 기초존재론인 '현존재'의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현존재'란 인간의 본질을 지칭하는 말로서, 인간의 본질은 존재개현성 혹은 존재이해에 있다.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주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각하고 그것과 관계하면서 그것의 물리적인 외양뿐만 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Department of Psychiat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aegu, Korea

†Corresponding author

나라 그것의 의미를 이해한다. 이것은 아마도 다른 동물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인간특유의 본질에 속한다. 존재이해는 존재의 의미(der Sinn vom Sein)이해이다. 존재의 의미이해란 어떤 이론에 근거한 의미이해가 아니고, 다만 이해하는 자의 존재개현을 통해서 주어진 현상이 드러내고 있는 다양한 의미들과 그 의미연관을 직접적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방식과 방법이 현존재분석에서 말하는 현상학적 관찰방식과 현상학적 방법이다. 그러므로 '신체화의 현존재분석적 이해'란 신체화의 현상학적 이해이다. 이와 같이 현존재분석적 의미이해는 인간의 본질인 존재개현성 혹은 존재이해를 통한 이해이다. 인간의 본질인 존재개현성 혹은 존재이해는 인간의 다른 본질적 특징들, 예컨대 현존재의 시간성, 공간성, 공존성, 역사성, 신체성, 죽음, 언어 등과 불가분적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신체화의 문제를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특징들 가운데 신체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논의의 전개는 먼저 '신체와 신체성'이란 이름하에 현존재분석에서 보는 신체성을 자연과학적 의미의 신체와 대비함으로써 신체의 본래적 혹은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고, 둘째는 '세계관계의 직접적 표현으로서의 신체화 현상'이란 이름하에 현존재분석에서 보는 신체화 현상은 그 인간(환자)의 세계관계 혹은 삶의 직접적 표현이라는 것을 해명하고, 마지막으로 '신체화 현상의 현상학적 이해'란 이름하에 현상학적 방법을 자연과학적 방법과 대비함으로써 현상학적 이해의 특징과 의의를 말해 보고자 한다.

신체와 신체성

지금까지 정신의학 내지 의학일반에서 파악하고 있는 신체개념은 17C René Descartes의 심신 이원론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그는 신체와 정신은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실체와 존재방식이라고 했다. 신체는 측정가능한 공간적 넓이로 규정될 수 있는 물질적 존재(Extensio)인데 반해, 정신은 비공간적인 내적 정신적 존재(Cogitatio)로 보았다. 모든 정신적인 것은 질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에 반해 모든 신체적인 것은 양적 상태로 보았다⁵⁾.

그러나 이런 심신 이원론에 기초한 의학은 연구면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으나, 의료면에서는 환자보다는

병에만 열중하는 의학의 비인간화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로 인해 정신-신체의 이분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다. 예컨대 Gottfried Wilhelm Leibniz의 예정조화설(시계제조인이 정확히 똑같이 가는 두 개의 시계를 조화시킨 것처럼 神이 그렇게 신체와 정신을 조화시켰어야 할 것이라는 설)이 단서가 된 정신신체병행론(psychophysischer Parallelismus)에서는 정신적인 것과 신체적인 것을 서로 상응하는 병행관계로 보았다. 이에 예컨대 Harald Schultz-Henke의 정신과 신체의 동시성 상관개념(Gleichzeitigkeitskorrelat)이나 Alexander Mitscherlich의 정신신체적 동시발생(psychosomatisches Simultangeschehen) 개념 등이 속한다. 이 가정은 궁극적으로 서로 독립적으로 병행하는 두 개의 현실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이론은 근본적으로 René Descartes의 정신-신체 이분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Benedictus de Spinoza의 두 측면설(Zweiseitentheorie)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의 전체적인 현실을 정신적인 것과 신체적인 2개의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두 측면설은 특히 Gustav Theodor Fechner를 통해 심리학에 도입되었고, Ludwig Klages는 신체를 정신의 표현으로 보았고, 신체와 정신은 본질에 있어서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William Stern은 신체와 정신의 두 측면을 인간이란 개념을 통해 일원론적으로 통합하려 했다. 모든 신체적인 것은 인간의 외적 표현이고, 모든 정신적인 것은 인간의 내면성이라는 것이다. 이런 통합시도는 신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인간을 통해 정신신체적 관계를 갖게 하지만 인간의 본질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밖에 '정신은 뇌신경의 기능'이라는 유물론적 일원론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은 정신의 활동이라고 보는 유심론적 일원론이 있다. 이런 일원론들은 그 타당성은 고사하고, 그 자체가 이미 정신과 신체의 이원성을 전제하고 있는 만큼 역시 René Descartes의 정신과 신체의 이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⁶⁾.

현존재분석에서는 심신의 이원문제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인간의 본질은 존재이해 혹은 존재의미의 이해에 있다. 존재의미의 이해는 인간의 정신만으로도, 또한 신체만으로 이해될 수 없다. 오직 전체로서의 인간(whole human being)만이 이해할 수 있다. 만약 우

리들이 눈이 보고 뇌가 기억한다고 말한다면, 우리들은 사물의 세계에 빠져 사물을 말하고 있을 뿐 인간을 말하고 있지 않다. 보고 기억하는 것은 뇌가 아니라 항상 인간이다. 그래서 현존재분석에서는 인간은 눈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는 능력 때문에 눈을 갖고, 뇌가 있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뇌를 갖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볼 수 있는 능력과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은 전체로서의 인간의 능력이다. 그리고 현존재분석에서는 정신이니 신체니 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인공적 개념이기 때문에, 정신이나 신체라는 말 대신에 정신적인 것(das Psychische)이나 신체적인 것(das Physische)이란 말을 사용한다. 정신적인 것과 신체적인 것이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전체로서의 인간의 정신적 측면과 신체적 측면을 가리킨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전체로서의 인간과 그의 신체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일 뿐, 신체와 정신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 신체와 정신을 통합하려는 시도는 불가능한 개념적 유희에 불과하다. 현존재분석은 심신의 통합이란 말 자체가 심신이원을 전제하고 있는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인간의 전체성에 대한 통찰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인간의 본질과 전체성에 대한 통찰에서 현존재분석은 심신이분에 기초한 자연과학적 대상으로서의 신체(Körper)개념과는 달리 신체를 신체성(Leiblichkeit)으로 이해한다. 신체성은 존재 혹은 존재의미를 드러내는 신체이다.

Heidegger⁷⁾는 우리들은 신체성으로서 살고 있다(Wir leben, indem wir leiben)고 했다. 이 말은 우리는 신체를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신체인 것으로 사는 것이다. 신체를 갖는다는 것은 신체가 소유의 대상이 되지만, 신체인 것으로 사는 것은 신체가 바로 그 인간 자신이다. 이런 신체성으로서의 신체는 존재의미를 드러내는 신체이기 때문에 항상 세계와 의미있는 관계를 맺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신체성으로서의 신체는 항상 그때그때의 인간의 세계관계에서 일어나는 삶이다. 인간은 세계와의 관계를 신체화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신체적으로 실존한다. 따라서 존재의미를 드러내는 신체성은, 피부표면으로 경계지워지는 신체와는 달리, 존재개현(실존)의 범위와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일례로 내가 상대방에게 나의 손가락으로 한 나무위의 새를 가리킬 때 나는 신체적으로 실존하는 인

간으로서 결코 가리키는 손가락 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손가락 끝을 지나 가리켜진 새까지 펼쳐진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새를 넘어 현재 나에게 주어진 세계로까지 미친다. 이런 의미를 드러내는 신체성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체의 일부인 눈의 도움으로 그 새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결코 신체적인 감각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보고 듣고 맛 보고 냄새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본질적 특징에 따라 듣고 보고 냄새맡고 맛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감각기관을 가질 수 있다.

신체성은 의미차원의 신체이다. 신체성은 이를테면 예술작품에 비유될 수 있다. 모든 예술작품은 분명코 외적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작품의 내용, 색깔, 무게, 길이 등을 측정하거나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예술작품이 드러내는 의미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작품의 의미 감상은 감상자의 존재개현을 통해 그 작품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때 그 작품의 의미가 드러난다. 그 작품은 항상 우리 앞에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그 의미를 보기만 하면 된다. 스스로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그 예술작품이 우리의 신체성에 비유된다.

작품의 의미를 감상하는 데는 항상 느낌이 수반되는 것처럼 존재의미의 이해에는 항상 느낌이 일차적으로 관여한다. 현존재분석에서는 느낌의 본질적 지칭으로서 기분의 조율성(Befindlichkeit)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다. 본질적이란 항상 존재개현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인간은 항상 어떤 방식으로든 세계와의 관계에서 이미 그의 기분의 조율성에 일치하여 그의 존재를 개현하고 있다. 인간은 기분에 따라 자신(존재)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 이것은 인간 현존재의 개현은 느낌이나 기분과 더불어 일어남을 말한다. 앞에서든 수차 언급했듯이, 어떤 현상의 존재의미는 인간 현존재의 존재개현을 통해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어떤 현상의 의미는 인간 현존재의 느낌이나 기분과 더불어 일어난다. 그 느낌과 기분은 신체와 더불어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가슴이 따뜻함을 느낀다거나, 끔찍한 장면을 대할 때 등에 소름이 끼친다거나, 간담이 서늘해진다고 하는 표현들이 그런 예들이다.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가슴, 등, 간담 등은 물리적인 신체의 일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존체와 관계하는 신체성을 드러내는 신체부분이다.

이와 같이 인간의 신체를 본질적으로(신체성으로)

이해함으로써, 심신의 이원 문제는 사라진다. 이런 인간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통해 우리들이 '나' 혹은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정신적인 어떤 것도 아니고, 단순히 신체적인 어떤 것도 아니며, 항상 그리고 실로 이미 정신과 신체의 전일적 존재임을 자각하고 확인하게 된다. 이런 전일성에 대한 통찰의 기초 위에서 비로소 예컨대 불안을 신체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에서 말할 수 있고 그 측면에서 연구할 수 있다. 그런 통찰이 없는 한, 말로는 마음과 신체가 '하나' (mind-body oneness) 인 듯이 이야기하면서 내용상으로는 마음을 신체에, 신체를 마음에 환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것은 특히 오늘날 신경과학자들에 의한 '마음은 뇌신경의 기능'이란 소위 유물론적 일원론의 부활과 그리고 다시 등장하고 있는 제 심신문제에서 엿볼 수 있다.

현존재분석은 예컨대 인간의 뇌를 전 인간으로부터 분리되고 개념화된 개별적 기관으로 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뇌(Gehirn)라는 말 대신에 '뇌적인 것' (das Gehirmliche)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른바 어떤 약물이 실존하는 인간의 뇌로 들어갈 때, 그 약물은 실로 뇌라는 신체의 개별적인 기관뿐만 아니라 항상 일차적으로 이미 그리고 직접적으로 인간실존함 그 자체와 관계한다. 그러나 인간의 전일성에 대한 통찰 하에서는 개별장기로서의 뇌를 말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다.

이로써 특히 심리적 인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신체적 상태를 다루는 정신신체학에 있어서는 이러한 전일성에 근거하고 있는 '신체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이해는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세계관계의 직접적 표현으로서의 신체화 현상

현존재분석적 관점에서 보는 신체화는 인간의 세계관계의 표현이다. 세계관계의 세계관 물리적인 의미의 세계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개인에 따라 의미를 드러내는 세계이다. 의미연관과 지시연관으로 이루어진 그물과 같은 개개실존의 고유한 세계이다. 개개인이 사는 삶의 지평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실존 혹은 인간 현존재를 세계내의 존재(In-der-Welt-sein)라고 한다. 이런 의미를 드러내는 세계관계가 신체로 표현된다.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간단한 예로서는 수치스러움으로 얼굴을 붉히는 경우나 화가 나서 손을 떠는 경우다. 이때 수치스런 감정이나 화는 어떤 사람이나 사건과의 관계에서 일어나고 그런 관계가 신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세계관계의 신체화는 인간신체의 깊숙한 내면에서까지 일어난다. 일 예로, 만약 어떤 사람이 뱀을 보고 심한 공포를 일으켜서, 그 사람의 전 존재가 뱀으로부터 도망가는 세계관계로 위축된다면, 그 관계는 역시 수초이내에 신체적으로도 일어난다. 이 심한 공포는 일종의 신경흥분형태를 취하고 도주하게 한다. 즉 무서운 공포에 상응하는 수의근의 수축이 일어난다. 그 후에는 아드레날린이나 그와 유사한 호르몬의 분비가 일어난다. 만약 이런 공포가 지속되어 수시간 뛰어도 도망 다닌다면, 장딴지 근육의 세포에 일어난 비대성 변화를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뱀으로부터 도망하는 관계가 세포에 이르기까지도 반영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인간신체는 인간실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실존의 모든 세계관계와 항상 그리고 직접적으로 일치하여 반응한다. 그러나 그 반응은 자극에 대한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세계관계 혹은 삶의 관계가 반영되고 있는 의미있는 반응이다.

임상적 차원의 신체화 현상(증상)도 정상적인 신체화 현상과 마찬가지로 그 환자의 세계관계 혹은 삶의 관계의 표현이다. 신체화 증상을 말할 때는 그것은 현대정신의학의 개념상 신체형장에 환자와 정신신체장애 환자에 해당된다. 그들의 신체화 증상은 그들의 세계관계속에서 그들의 삶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물론 그들의 신체화 증상은 방해된 세계관계의 표현이다.

신체화 증상이 방해된 세계관계 혹은 삶의 표현이라면, 그 방해된 세계관계와 질병간에 특이한 연관이 있는가? 이를테면, 신체형장애와 정신신체장애를 구별케 하는 특이한 세계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정신신체장애에 있어서는 정신신체장애들간을 구별케 하는 특이한 세계관계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소위 질병선택과 기관선택의 문제로서 정신분석의 영역에서 논의되어 왔다. 질병선택에 관해, 예컨대 Alexander⁸⁾는 히스테리(오늘날 개념으로는 신체화장애와 전환장애에 해당)와 자율신경성 신경증(오늘날 개념으로는 정신신체장애)을 명확히 구별했다. 즉 히스테리는 중추신경계가 지배하는 기관에 일어나고 자율신경성 신경증은 자율신경계가 지배하는 기관에서 일어난다고 했다. 그리고

히스테리 증상은 억압된 감정을 신체적으로 풀려는 시도로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반해, 자율신경성 신경증 증상은 감정표현의 시도가 아닌, 그런 감정상태에 대한 생리적 반응일 뿐이라고 했다. 그리하여 그는 히스테리 증상을 “의미있는” 히스테리성 상징화, 자율신경성 신경증을 “의미없는” 가능장애로 보았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정신분석영역 내에서도 많은 비판이 있었다. 일례로 Otto Fenichel⁹⁾이다. 그의 경험적 사실은 Alexander의 이론과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히스테리성 구토나 히스테리성 월경장애는 임신하고 싶은 환상내용을 상징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Alexander¹⁰⁾는 장기선택문제와 관련하여 특정한 정서적 갈등이 특정기관의 기능장애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았다. 일 예로, 구강기에서 비롯된 해결되지 못한 의존 갈등이 위궤양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현존재분석에서는 앞에서 누차 말한 것처럼 신체화 현상은 인간의 본질에 기초한 세계관계 혹은 삶의 관계로부터 이해된다. 우선 질병선택과 관련하여 현존재 분석은 히스테리와 정신신체장애에 관해, 모두 존재의미를 드러내는 세계관계의 신체화 현상으로 본다. 그러나 양자간의 차이는 세계관계의 방해된 정도이다. 말하자면, 정신신체장애의 신체화 증상은 히스테리의 신체화 증상보다 더 큰 방해의 정도를 반영한다.

이에 관한 예시로서, Boss¹¹⁾의 치료사례의 일부를 단편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급속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여자환자로서 12년동안이나 치료를 받았고 이 기간동안 증상들이 끊임없이 바뀌었다. 이 환자는 월경이 시작되기까지는 건강하고 호감을 주는 아이였는데, 월경이 시작될지 1년반이 지난 후에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비난에 분개했고 분노발작을 일으키기도 했다(그전에는 어머니와는 사랑에 넘치는 관계였다). 이 시기에 환자는 자신이 비난해지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부풀어 오르는 가슴을 싸매기 시작했고 굶기를 자주했다. 체중이 심히 줄어들었고 월경도 중단되었다. 치료를 받았으나 일시적 효과에 불과해서 중단했다. 놀랄 정도로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활력을 유지했고 학교수업을 계속했다. 17세때 처음으로 한 남자를 좋아하여 정신적인 우정을 발전시키면서 건강을 회복했다. 19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부모 모르게 그 친구와 마을의 음악회에 참석하여 춤을 한 번 추고 난 후 그 남자친구가 아파서 토하기 시작하여, 환자에게 곧 돌아오겠다고 하

고 급하게 집으로 갔다. 그 동안에 다른 한 남자의 춤 요청에 응했고 춤춘 뒤 산책하자는 그 남자의 요청에도 응했다. 숲으로 걸어가다가 강간 비슷한 습격을 당하고 공포감속에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달려왔다. 수일이내에 평상의 상태로 돌아 왔으나 때때로 눈물을 흘리곤 했다. 6주후에 갑자기 점심식사때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후굴의 자세로 이상한 율동적 동작을 나타내는 히스테리증상이 나타났다. 그때 치료한 의사는 일반의 옌지만 발작후의 그녀의 얼굴은 성적 욕망으로 가득찬 이상하게 빛나는 눈으로 특징되는 전형적인 히스테리 얼굴임을 알아차렸다. 그 후 발작은 이삼일마다 규칙적으로 일어났으나, 의사는 겁먹은 부모들에게 딸의 상태는 위험하지 않고 상상적인 것이며 그녀를 내버려두고 차갑게 대하라고 했고, 부모들은 의사의 권고를 따랐다. 또한 그 일반의는 환자에게 발작이 그녀가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강간장면의 충격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암시했다. 그 후 히스테리 발작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나 곧 그녀에게 다른 병이 생겼다. 9개월후 그 일반의로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백대하(fluor albus) 때문에 그녀는 부인과 전문의사의 진찰을 받아야만 했다. 1년반 동안의 모든 치료에도 성과는 없었다. 그리하여 결국 최면치료를 하는 정신과 의사에게 보내져 그 증상은 놀랍게도 호전되어 4주만에 치료종결 되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울기분이 남아 있었다. 증상이 있을 때 보다는 기분이 더 좋지 않았다. 곧 그녀의 이런 정서적인 부담은 신체적으로 표현되었다. 점차 호흡곤란과 심계항진 증상이 나타났다. 심장이 파열되는 것처럼 느꼈다. 그리하여 순환기내과 전문의사를 찾았는데 심장노이로제로 진단되었다. 진정제를 처방했으나 일시적 효과뿐이어서 그 후 5년간 이 의사 저 의사를 찾아 다녔으나 실패였다. 결국 Boss에게 정신치료 받도록 의뢰되어 치유되었다.

이 사례에서 Boss는 그의 치료를 통해 히스테리 증상이 백대하의 정신신체장애로 바뀌게 된 것은 이 환자를 치료했던 일반의가 그녀의 히스테리 발작과 그녀가 그전에 겪었던 성적 경험간의 관련성에 대한 암시적 해석을 한 것과 그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 환자증상에 대한 부모의 무관심한 행동이었음을 확인했다. 그의 사가 환자의 히스테리 증상의 성적 내용을 지적함으로써 환자는 히스테리성 변장으로는 더 이상 성적인 사람

을 감출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그 의사의 해석을 아직 받아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의 세계에서는 여전히 본능적이고 감각적인 행동 방식은 죄스러운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다 강한 방어와 변장이 필요했다. 또한 환자의 히스테리 증상은 부모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었는데, 부모들은 그녀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그녀가 히스테리적 방식으로나마 이성적 사랑관계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했다. 그 결과 히스테리 증상은 정신신체적인 백대하 증상으로 바뀌었다. 더 나아가서 정신신체적인 심장장애로 바뀌었다. 말하자면 히스테리성 방식으로나마 성적 사랑의 관계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이 차단됨으로써 백대하와 심장증상을 통해 더 큰 차단의 방식으로 그 관계가능성을 실현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첫 차단이 충분하지 못할 때는 그 차단은 신체의 말단부로부터 내부로 옮겨진다. 그것은 더 큰 은폐를 의미한다.

요컨대 이 환자는 히스테리 증상과 정신신체 증상으로 이성적 사랑의 가능성을 실현하고 있다. 다만 그 사랑의 가능성을 실현하고 있는 신체영역이 다르고 그 가능성의 은폐의 정도가 다를 뿐이다.

그 다음은 소위 기관선택(여기서 기관선택은 정신신체장애 뿐만 아니라 신체형 장애도 해당된다)과 관련하여, 현존재분석은 환자의 세계관계와 그 세계관계가 표현되는 신체기관간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어떤 특정한 신체화를 결정하는 것은 항상 그 환자의 특이한 세계관계이다. 건강한 사람들에게 있어서조차도 그들 실존의 신체적 영역은 그때에 수행되고 있는 세계관계의 전면에 나타난다. 신체형 장애와 정신신체장애의 신체현상은 비록 억눌린 방식이기는 하지만 그때에 실존하고 있는 인간의 세계관계에 전적으로 속한다. 앞에서 예시했던 Boss의 사례에서 그 환자의 주된 문제는 이성의 남자와 사랑을 함께 나눌 삶의 가능성이 제지된 것이었다. 그 제지된 사랑의 가능성이 후굴의 자세로 이상한 울동적 동작을 나타내는 히스테리 증상과 질분비의 백대하 증상 및 증가된 심장박동이라는 정신신체증상들로 나타났다. 왜 하필 이 환자에게 히스테리 증상이 골반경련으로 나타났는가. 히스테리성 사지마비나 히스테리성 실어증 같은 증상으로는 표현될 수 없었던가. 그리고 정신신체증상에 있어서도 왜 하필 백대하의 질분비와 심장박동증상인가. 편두통이나 위장증상으로는 표현될 수 없었던가. 여기서

이 환자의 특정한 세계관계와 특정한 신체기관과의 관련성을 엿볼 수 있다. 만약 이 환자가 자신을 강간하려 했던 그 남자를 증오했더라면, 그리고 그를 때려주고 싶었을 때 그 충동을 충분히 의식하지 않았거나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면, 그 남자에 대한 증오의 관계는 아마도 팔근육의 히스테리성 마비나 히스테리성 경련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 그 남자에 대한 증오의 관계가 정신신체적으로 나타났다면, 백대하 증상으로는 일어날 수 없었지만 심장박동의 심장증상으로는 나타날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심장은 사랑의 세계관계 뿐만 아니라 증오의 세계관계의 신체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심장은 역시 불안이나 슬픔 등의 세계관계를 나타낸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가 치료한 한 사례를 간단히 소개해 보기로 한다. 환자는 야심한 40대 중반의 직업여성 위계양 환자였다. 그녀의 세계관계는 사물이나 사람을 압도하고 지배하는 특성을 갖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항상 최고가 되어야 하고 남에게 지면 안 된다는 세계관계로 강요되어 왔다. 그 결과 다른 삶의 가능성들은 실현되지 못한 채 심히 제약되어 있었다. 이런 그녀의 지배적이고 압도적인 세계관계는 특히 자식, 남편 그리고 직장생활과의 관계에서 잘 드러났다. 그러던 중 대입준비의 아들 뒷바라지와 직장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위계양 증상을 나타냈다. 자신의 실존가능성 이상으로 많은 일을 처리하고 소화하려는 노력과 시도가 위계양 증상으로 표출되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신체기관은 어떤 형태로든 그 사람의 세계관계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현존재분석의 입장이다.

신체화 현상의 현상학적 이해

신체화 현상의 현상학적 이해를 위한 간단한 예로 '얼굴의 붉음'을 보자. '얼굴의 붉음'은 수치심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화가 나거나, 열이 나거나, 아니면 차가운 겨울밤에 바깥에 있다가 따뜻한 방으로 들어왔을 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붉음이 수치스러워서, 화가 나서, 더워서 그런지 그때마다의 상황에 놓여있는 그 사람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붉음이란 현상을 개별적인 대상으로 분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그 부분현상을 전체로서의 인간과 그의 세계와 분리해서 보지 않기 때문

이다. 만약 그 붉음이란 현상을 전체로서의 인간과 그의 세계로부터 분리해서 대상화하여 관찰한다면, 그 붉음에서 예컨대 전기-자기적인 파장을 측정할 수 있다. 이때 수치감으로 붉은 뺨에서 파생하는 파장들은 열로 인한 붉은 뺨에서 생긴 파장들과 같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의미상으로는 열로 인한 붉음과 수치로 인한 붉음은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은 얼굴의 붉음은 외양상으로는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마는 각각 다른 세계관계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전혀 다르게 나타남을 가리킨다. 앞에서 세계관계의 세계란 개개 실존에 고유한 의미연관과 지시연관의 그물망이라고 했다. 세계관계의 표현으로서의 신체화 현상은 걸으로는 어떤 일정한 신체부위를 통해 나타나지마는 항상 전체성으로 존재한다. 전체성 혹은 전일성이란, 위의 예의 경우 수치감이나 열감에 조율되어 실존하고 있는 인간과 그의 세계이다. 정신신체장애의 신체화 증상의 이해도 마찬가지다. 존재 의미는 항상 전체성에서만 드러난다. 이런 전체성에서 드러나는 존재 의미를 보는 방법이 현상학적 방법이다.

현상학적 방법에 있어서 핵심개념은 ‘현상학적’이란 말이다. 현상이란 개념은 특히 서양철학사를 통해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나 여기서는 Heidegger의 개념이다. 그의 개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사람은 그의 스승이며 현상학의 창시자인 Edmund Husserl이다. Husserl¹²⁾의 현상학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현상학적 판단증지(Epoche)를 통해 본질을 직관하는 순수의식에 관한 학문이다. 판단증지는 그 어떠한 매개나 전제없이 ‘직접보기’ 위해서 예컨대 어떤 이론이나 외부세계의 존재여부에 대한 관심을 유보하는 방법론적 개념이다. 말하자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사실 자체에로’(Zur Sache selbst) 되돌아가려는 것이다. 그의 현상학은 현실을 아무런 선입관없이 순수하게 관찰하는 방법, 혹은 사실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Heidegger¹³⁾는 현상학의 의미를 현상학이란 희랍어의 어의를 밝히는데서 출발한다. 현상학은 희랍어의 Phainomenon과 Logos의 합성어이다. Phainomenon은 ‘자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 ‘은폐성으로부터 나타나는 것’, ‘번쩍 빛나는 것’, ‘자신을 벗기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Logos는 ‘어떤 것을 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현상학이란 직

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 혹은 은폐성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을 보게하는 방법이다. 어떤 현상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 혹은 은폐성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은 존재로서, 이 존재의 나타남은 인간 현존재의 존재개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현존재의 존재개현속에, 주어진 현상의 존재가 일어난다. 이때 현존재의 존재가 바로 현상의 존재가 된다. 존재의 일어남(Seinse-reignis)만이 있다. 역지로 표현한다면, 존재가 존재를 보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주관과 객관이 하나되는 주객일여적 이해이다. 이것이 그의 현상학의 기본특징이다.

이런 그의 현상학적 관찰방식과 방법은 주관과 객관의 이원성에서 출발하는 자연과학적 관찰방식과는 구별된다. 주객의 이원적 관계에서는 현상의 외상만을 보게 되고 그 외상으로서의 부수현상(Epiphanomen)간의 관계(인간관계)에만 열중하게 된다. 현상학적 관찰방식은 어디까지나 관찰자의 존재개현이 일차적이다. 그 존재개현에 드러난 주어진 현상의 존재 혹은 존재의미를 보고 읽는 것이다. 말하자면 자연과학적 관찰방식에서는 일차적 관심이 대상인 객체에 있는 것이라면 현상학적 관찰방식은 주체에 있다. 자연과학적 관찰방식이 외양적 현상의 기술에 열중한다면 현상학적 관찰방식은 외양적 현상을 통해 그 현상의 의미와 기본구조를 해석학적으로 밝히는데 있다. 그러므로 현상학적 방법을 해석학적이라고 한다. 즉 현상학적-해석학적 방법으로 불려진다. 여기서 말하는 ‘해석학적’이란 말은 원인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현상의 의미를 펼쳐 현상에 드러나는 의미를 그대로 보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 현상학적-해석학적 방법을 통해 신체화 현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현상의 의미를 밝힐 수 있는가?

신체화 현상은 앞에서 누차 언급한 바와 같이 그 환자의 세계관계의 직접적 표현이고, 세계란 의미연관과 지시연관의 거물망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신체화 현상의 현상학적 이해란 그 환자의 세계관계의 이해이다. 그 세계관계의 이해는 환자-치료자간의 대화를 통해 일어난다. 그 대화는 현상학적-해석학적 대화다. 치료자가 환자를 이런 대화로 유도하는데는 질문이 중요하다. 지속적인 열린 질문을 통해 존재의 일어남을 유도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세계관계를 펼치도록 하는 현상학적-해석학적 질문이다. 따라서 질문양식은 왜(why)이기 보다는 그렇게 해요(why not)가 된다. Why는 주

어진 현상에 대한 원인을 추구하는 과학적 질문이라면, why not은 주어진 현상에 대한 의미를 개현하도록 허용하는 현상학적 질문이 된다. Why not의 현상학적 질문은 환자의 관계가능성(의미연관과 지시연관)을 가능한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게 한다. 그런 표현을 통해 환자는 자신의 존재 혹은 존재 의미를 드러내고 직접적으로 체험하여 새로운 감정 체험과 그에 따른 새로운 세계 관계를 체험하게 된다. 그런 체험이 치료로 연결된다.

그러나 현상학적-해석학적 대화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치료자의 이해능력 즉 존재개현능력이다. 존재개현을 통한 이해는 어떤 이론을 통한 간접적 이해가 아닌, 자신의 존재개현을 통한 직접적 이해이다. 말하자면 주어진 현상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보는 연습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현존재분석을 '보는 학과'(Sehschule)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는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보이지만, 그 보는 것이 보는 자의 존재개현을 통한 심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간단하지 않다. 현상학적 해석학적 방법은 공자가 말한, 수없이 읽어서 스스로 통하는 百讀自通과 맥을 같이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수없이 읽어서 스스로 그 뜻이 통했을 때 어떻게 그 뜻이 통했느냐고 질문한다면 이 질문에 대해 자연과학적으로 답할 수 없다. 그리하여 Heidegger는 후일에 자신의 현상학적 방법이란 명명에서 방법(Methode)이란 말 대신에 길(Weg)이란 말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그는 희랍어의 어의를 인용하면서 방법(methodos)이란 대상인 사물을 개념화하기 위하여 그 사물을 뒤쫓아 사고하고 그 사고한 내용을 조직하고 정돈하는 것으로서, 이는 주체에 머물러 주체의 존재개현을 통해 주어진 현상의 의미를 보는 길(hodos)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였다. 즉 방법은 부수현상에 관계하는 과학적 방법이라면, 길은 현상의 의미와 관계하는 현상학적-해석학적 방법이다. 전자가 學으로서의 방법이라면, 후자는 道로서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¹⁴⁾.

과학적 방법은 일부 현상들을 기술하고 현상들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인데 반해, 현상학적-해석학적 방법은 전체로서의 현상 그 자체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그 의미는 일례로 치료자와 환자간의 존재개현으로 일어나는 공감적 체험에서 잘 드러나는 가장 직접적이고 생동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궁극적으로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Heide-

gger는 '無'(Nothingness)로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 인간은 그 본질에 따라 '일차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현상학적-해석학적 사고 즉 전체적 사고에 기초하여야 하고, 그런 전체적 사고의 틀위에 이차적으로 과학적 사고가 서 있어야 한다.

요 약

현존재분석에 있어서 신체화 현상의 이해는 신체의 본질적 특성으로부터 출발한다. 신체의 본질적 특성은 인간실존의 본질적 특징인 존재의미를 드러내는 '신체성'이다. 존재의미는 항상 관계속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체성으로서의 신체는 항상 세계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그와 같이 신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세계관계가 신체화 현상이다. 신체화 현상의 의미는 신체화 현상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자연과학적 방법과는 달리 현상학적 방법으로 이해된다.

REFERENCES

- 1) Campbell RJ (1989) : Psychiatric Dictiona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685
- 2) Freud S (1957) : Five Lectures on Psycho-Analysis. London, The Hogarth Press, pp18
- 3) 송지영 (1996) : 신체화의 기전. 정신신체의학 4(2) : 262-268
- 4) Heidegger M (1976) : Sein und Zeit. Tübingen, Max Niemeyer, pp41-230
- 5) Uslar D (1999) : Das Leib-Seele-Problem und die Leib-Seele-Einheit. Daseinsanalyse 15 : 45-51
- 6) Condrau G (1977) : Psychosomatik und Psychotherapie. In : Leiben und Leben. Ed by Condrau G and Hicklin A, Bern, Bentli, pp79-209
- 7) Heidegger M (1987) : Zollikoner Seminare, Ed by Boss M, Frankfurt am Main, pp105-146
- 8) Alexander F (1950) : Psychosomatic Medicine. Cited from Condrau G (1977) : Psychosomatik und Psychotherapie. In : Leiben und Leben. Ed by Condrau G and Hicklin A, Bern, Bentli, pp79-209
- 9) Fenichel O (1945) : The Psychoanalytic Theory of Neurosis. Cited from Condrau G (1977) : Psychosomatik und Psychotherapie. In : Leiben und Leben. Ed by Condrau G and Hicklin A, Bern, Bentli, pp79-209
- 10) Alexander F (1934) : The Influence of Psychologic Fa-

- ctors upon Gastro-intestinal Disturbances : A Symposium. *Psychoanal. Quart.*, 3 : 501-539. Cited from Taylor GJ(1987) : *Psychosomatic Medicine and Contemporary Psychoanalysis*. Madison/Connecticut,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Inc.
- 11) Boss M(1963) : *Psychoanalysis and Daseinsanalysis*. New York/London, Basic Books, Inc., pp155-177
- 12) Husserl E(1959) : *Theorie der Phänomenologischen Reduktion*. G. W. Band VIII, Haag, Martinus Nijhoff, pp82-131
- 13) Heidegger M(1976) : *Sein und Zeit*. Tübingen, Max Niemeyer, pp27-40
- 14) 이죽내(2000) : 현존재분석의 정신치료적 의의. *한국정신치료학회지* 14(1) : 3-12

— ABSTRACT ————— *Korean J Psychosomatic Medicine* 10(2) : 69-77, 2002 —

Somatization in the Perspective of Daseinsanalysis

Zuk-Nae Lee, M.D.

Department of Psychiat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aegu, Korea

The Daseinsanalytic understanding of somatization as a phenomenon begins with a question about the real nature of human body. The human body is primarily not an object of scientific study, which is based on the dichotomy of mind and body, but it is an existential body(Leiblichkeit) disclosing the meaning of Beingness of human being. Since the meaning always discloses itself in man's relations with his world, his body in existential nature expresses his relations with the world.

Such a somatic expression of world relations is the phenomenon of somatization whose meanings are illuminated by phenomenological method, which is unlike the method adopted by natural science investigating the cause and effect.

KEY WORDS : Somatization · Daseinsanalysis · Meaning of Beingness · World-relation · Phenomenological method.